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 사제, 보제,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에게 보내는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의 성탄절 서신

주님 안에서 경애하는 주교님들, 존경하는 사제들과 보제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사들과 수녀들 그리고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저는 삼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와 오늘 축제의 기쁨을 나누면서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체현하신 축일이자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실현이며 구원과 영생에 대한 희망의 축일인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을 러시아에 거주하는 신자들과 모스크바 총대교구가 관할하는 다른 나라들에 거주하는 신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우리 정교회 자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대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기적이 이루어졌도다. 동정녀가 출산하시나 태는 상하지 않는도다. 말씀이 사람 되시나 성부와 나누이지 않으시는도다. 천사들이 목자들과 찬양하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외치나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성탄 대축일 스티히라) 이러한 말씀으로 그리스도 교회는 2 천여 년 전 베들레헴의 동굴에서 일어나 세계 역사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 놓은 신비의 사건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에 관한 신성한 신비 앞에 놀라워하면서도 경건한 자세로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요 섭리자께서 주시는 희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으면서 “은총을 노래하고 자비를 선포하며 은혜를 숨기지 않습니다.”(대성수식 기도문)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느님 은혜의 참여자가 되고,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된”(마태오 25:34)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 21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을 믿고 완전히 신뢰하며, 복음의 계명을 실천하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시편 33:15), 구세주의 부르심에 따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마태오 5:13~14)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의지와 양도할 수 없는 선택권을 부여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 들일 수도 거부할 수 있고, 빛의 편에 설 수도 죄의 어둠 속으로 뛰어 들 수도

있으며, 양심에 따라 살 수도 이 세상의 정령(政令)들에 따라 살 수도 있고(콜로새 2:8), 선행을 통해 자기 마음속에 낙원을 건설할 수도 반대로 악행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의 고통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각자는 삶의 기쁨과 충만을 누리도록, 간단히 말하자면 행복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 행복은 하느님 없이는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과 모든 선의 원천이시고, 창조주요 섭리자이시며, 인자한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배려하는 조력자이시며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유 의지를 부여 받은 인간은 생명을 선택하고 하느님과 닮아 갈 수 있지만, 또한 하느님이 없고 은총이 없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서는 절대 우리의 참여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선하고 완전한 하느님의 뜻과(로마 12:2) 비록 불완전하지만 선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뜻의 결합이 바로 우리가 지상 생애를 성공적으로 살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그 사람이 지상 생애에서 처해 있었던 영적 상태의 연속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사도 바울로의 말씀대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와(갈라티아 5:22~23) 기타 성령의 은사들을 얻으려 노력합시다. 우리는 명목상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가족과 이웃, 동료와 동역자 등 우리의 도움과 참여, 공감과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도록 합니다.

모든 날에, 특히 이 대축일에 우리는 “온 세상의 평화와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의 안위를 위하여, 병든 이들과 고통 받는 이들, 구속된 이들을 위하여,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청원의 의미는 지금 매우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싸우기를 원하는 악, 전쟁, 분열의 세력이 정교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대감과 증오를 심고 교활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들과 그 앞잡이들의 하찮은 오만함이 전부 좌절될 것을 믿고 희망합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의 오랜 경험은 우리에게 이를 확신시켜 줍니다.

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때로는 생명과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목적 봉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합법적 정교회에 충성하고, 두려움 없이 고백의 길을 따르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치욕과 슬픔을 견디고 있는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주님께서 시련 속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용감하게 옹호하는 이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고난을 의로움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례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충만함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오 28:20)라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로가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로마 8:31)라고 외치며 상기하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영감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창조하고 투쟁하고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성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듯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사도 4:12) 그 외 다른 이름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교회는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 바울로 사도가 단언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이기(에페소 2:19)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다 함께 가족이고 이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조물주와 만나는 수단인 교회의 예배와 예식들 안에서 영원의 장막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성경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때(1 코린토 15:28),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과 친교하는 기쁨과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을” 때(로마 8:39), 하느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 다시는 죽음이 없게 될” 때(묵시 21:4) 장차 얻게 될 존재의 충만함을 이미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됩니다.

교회는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모든 사람이 영원한 행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 살 것을 호소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하늘로 올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영적·도덕적 변화의 길을 따를 것을 끊임없이 제안하시는데, 이 변화는 복음의

계명을 실천하고, 인간과 하느님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 그분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서, 우리의 일상사와 관심사에서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인도받는 법을 배우면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삶은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과 소명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굳건한 신앙과 위로부터 오는 도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매일 새로운 날과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기뻐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언제나 ...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도록”(에페소 5:20) 합시다. 모든 영광과 영예와 경배가 그분께 영원히 마땅하나이다. 아멘.

나의 친애하는 여러분 모두께 그리스도 성탄 대축일을 축하드립니다!

2024/2025 년 성탄절,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및 전 루시 총대주교 키릴